



## 어린이 도서관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 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ies Services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분과(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ection)는 전세계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중요성, 어린이의 독서, 그들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있다.

IFLA의 어린이/청소년 분과에서는 『어린이 도서관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봉사의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국의 언어로 번역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협회 송영숙 어린이·청소년 봉사위원회 위원장(IFLA 어린이·청소년 도서관분과 상임위원, 서울독서교육연구회 회장)의 번역문을 수록한다.

본 번역문의 원문은 <http://www.ifla.org/VII/s10/pubs/ChildrensGuidelines.pdf>을 참조하기 바라며,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봉사의 지침』의 한국어 번역문은 본지 2003년 7·8월호 96쪽~102쪽에 게재된 바 있다. ■편집자 주

#### ■ 머리말

커뮤니티의 세계화와 오늘날의 정보시대는 사서직을 새롭게 만들어가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개혁을 인식하고 향상시키도록 하는 기술의 이용을 가져왔다.

요약형태의 본 가이드라인은 모든 규모의 도서관이나 경제적 수준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업무수행의 도구로써,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IFLA의 출판물인 『IFLA/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The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공공도서관봉사: IFLA/유네스코 공공도서관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The Public Library Service: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봉사의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for Young Adults)』을 보완한다.

#### ■ 들어가는 말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봉사가 전세계의 어린이와 그들 가족에게 오늘날만큼 중요한 적은 없었다. 지식에로의 접근과 세계의 풍부한 다문화는 평생학습이나 읽고 쓰는 기술과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에서 우선하는 것이 되었다. 높은 수준의 봉사를 수행하는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그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평생학습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게 하며 읽고 쓰는 기술을 배우도록 한다.

도서관은 점점 증가하는 사회의 변화에 끊임없이 대응해야 하고, 모든 어린이들의 정보요구, 문화 및 오락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어린이는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서관과 친숙하고 편

안한 곳으로 느껴야 하며, 일반적으로 도서관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기술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 ■ 목적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전세계의 여러 나라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높은 수준의 어린이봉사를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 ■ 대상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은 현장 사서, 도서관 운영자와 정책수립자, 도서관 정보학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학생이나 교육자들이다.

## - 제 1 장 -

#### ■ 직무

“광범위한 도서관자료와 도서관활동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지식을 발견하는 흥분,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하여 독서학습과정을 지원하고 어린이책이나 다른 매체를 장려하는 특별한 책임을 가진다.

도서관은 스토리텔링이나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자원에 관련된 활동과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의 도서관 이용을 권장하도록 한다. 이는 어린이들이 미래의 도서관 이용자로 남기를 더욱 좋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다언어 국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나 시청각자료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공공도서관봉사IFLA/유네스코 공공도서관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2001)

## - 제 2 장 -

#### ■ 어린이 요구와의 만남

‘어린이의 권리보호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누구든지 평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사항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 및 자료, 프로그램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 나이
- 종족

- 성별
- 종교, 민족이나 문화적 배경
- 언어
- 사회적 지위 또는
- 개인의 기술이나 능력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활동이고 세계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이 활동은 세계적인 정세에 영향을 받는다.

### ■ 봉사의 대상

어린이도서관이 환영하는 봉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개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다.

- 영 · 유아
- 학령전 어린이(유치원생)
- 13세까지의 학생
- 특별한 요구가 있는 단체
- 부모 및 그외의 가족
- 보호자
- 어린이, 책이나 미디어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그 밖의 어른

### ■ 목표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촉진시킬 것
  - 정보
  - 읽고 쓰는 기술적인 능력, 시각적 해독력, 디지털과 미디어 해독력
  - 문화의 개발
  - 독자로서의 개발
  - 평생교육
  - 여가시간을 이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 어린이들이 모든 자원과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
- 어린이,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마련할 것
- 가족들이 지역사회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
- 어린이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자유와 안전을 옹호할 것
- 어린이들이 자신있고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할 것
-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

### ■ 기금

어린이들은 “투자” 할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어린이도서관은 공공에게 제공되어질 자료와 봉사 수준을 유지하고 개선시킬 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표준예산은 외부기금의 자원으로 보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 정부지원금(특별 프로그램이나 새로 발의된 프로그램을 위한)

- 문화단체(음악, 댄스, 드라마, 예술, 역사적 민속적 공연으로)
- 출판사(저자 또는 삽화가의 방문이나 기타 기증으로)
- 후원(특별 이벤트를 지원하는 지역사업가나 자원봉사단체)
- 비정부기관
- 보조금

### ■ 자료

어린이도서관은 인쇄자료(책, 잡지, 풍자만화, 안내책자), 미디어(CD, DVD, 카세트), 장난감, 게임자료,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기기를 포함하는, 적합하게 개발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 ■ 선택기준

사서들은 바람직한 장서구성과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 양질의 자료
- 나이에 맞는 자료
- 현재 유통되는 정확한 자료
-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는 자료
- 지역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자료
- 전세계의 지역사회를 소개하는 자료

### ■ 공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 환영받는 공간이어야 하며, 매력적이고 도전받을 수 있는, 또한 전혀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어린이에게 봉사되어지는 공간은 자체 도서관지역 내에서 쉽게 눈에 띠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특별한 가구, 장식과 색깔 등) 도서관의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또는 사이버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를 제공해야만 한다.

### ■ 봉사

어린이봉사는 성인봉사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이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어린이도서관은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정보요구, 문화 및 오락의 요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나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

- 다양한 자료의 대출
- 정보 및 참고봉사의 제공
- 어린이의 자료선택 도와주기
- 도서관자료의 선정과 도서관봉사의 개발에 어린이 참여시키기
- 도서관 이용기술과 정보읽기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제공하기
-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하기(독서증진)

-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이야기시간의 제공
- 부모 및 보호자교육
- 보호자, 유치원교사, 학교교사, 사서를 위한 참고봉사 및 연수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단체와 교육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 ■ 네트워킹

지역사회 내의 다른 단체나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는 중요하고도 유익하다.

- 지역의 정보 및 문화적요구를 조사하는 것과 도서관자원을 그 요구에 맞추려는 노력은, 어린이들의 이익을 위해 그 지역사회기관과 경쟁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데 있음이 확실하다.
- 학교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의 지원을 제공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자율교육과 여가를 즐기는 독서와 연관을 가진다.
-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및 기타 보육시설은 특히 어린이, 부모 및 전문 가를 위한 독서교육활동에 있어서 필요하고도 환영받는 파트너가 되는 기관이다.

### ■ 홍보

어린이의 시간을 얻고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경쟁력있는 방법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일반대중에게 어린이도서관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다. 독서와 읽고 쓰는 능력은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며, 이에 대한 가치는 변함없이 강조되어야 한다.

### ■ 인적자원

어린이도서관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려면 잘 훈련된 책임있는 어린이사서가 필요하다. 재능있는 어린이사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술이 요구된다.

- 열정
- 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협조적인 팀업무 및 문제해결 능력
-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동할 줄 아는 능력
- 솔선수범하며, 변화에 유연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기획하며, 봉사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평가 하는 능력
-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문적으로 개발하려는 열성

어린이사서는 또한 다음 것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 아동심리와 발달
- 독서개발과 독서교육의 원리
- 예술 및 문화활동의 기회
- 책으로 출판된 어린이문학 및 이에 관련된 미디어

### ■ 경영과 평가

어린이봉사를 담당하는 사서가 전체적인 도서관의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는 것, 도서관의 전반

적인 목표와 장기계획을 세울 때에 어린이봉사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확실히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수행능력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는 평가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도구이다.

- 자원, 직원, 봉사, 대출, 도서관활동 등과 관련된 통계를 수집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의 의무 조항을 제시하고, 정보에 의거한 경영관리 결정서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
- 표준화된 자격기준에 기초하여 직원의 수행능력을 측정할 것

### - 제 3 장 -

#### ■ 당신의 참가를 바랍니다!

-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의 상임위원회는 당신의 도움을 청합니다.
-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에 가입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분과의 IFLA 웹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실천”의 사례를 보내주십시오.
- 편집 및 게재를 위해 상임위원장이나 정보코디네이터에게 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정보

본 가이드라인의 소책자는 IFLA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2003년 12월)

만약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의 업무에 관심이 있다면 IFLA의 회원이 되어 이 분과에 등록해 주십시오.

#### ■ © IFLA

추가정보 및 좀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IFLANET([www.ifla.org](http://www.ifla.org))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가이드라인 전문의 인쇄판은 정보코디네이터에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분과의 워킹그룹과 협력자들에 의해 개발된 원문에 기초하였으며, 참고로 본문을 [www.ifla.org/VII/s10/scl.htm](http://www.ifla.org/VII/s10/scl.htm)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 조직개편 방침에 대한 도서관계의 공동 입장

우리 도서관계는 문화와 도서관 발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귀 부의 열정과 활동에 감사와 지지를 보냅니다. 최근에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바람직한 도서관 발전의 주요한 기반조건인 도서관법 개정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귀 부의 최근 동향과 관련하여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한국도서관협회가 지난 2003년 8월 18일과 9월 19일에 걸쳐 귀 부의 조직개편, 즉 도서관박물관과를 폐지하고 도서관 정책기능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이관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여쭙고, 그러한 방침이 도서관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 문화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 부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귀 부에서는 지난해 11월 14일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에서 '도서관박물관 기능전환 방안'이라는 안건을 통해 추진배경과 도서관 업무관련 주요 조정내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도서관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가,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국민독서진흥 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공공도서관의 설립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 부의 조치는 도서관 정책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도서관발전위원회(가칭) 신설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도서관계는 당시 회의에서 제시한 방안이 한국도서관협회의 상기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생각합니다. 즉, 도서관박물관과는 폐지하되, 정책입안은 귀 부의 문화정책실(문화정책과)이, 구체적인 집행기능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귀 부의 입장 표명 이후 수 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더 이상의 논의가 없고, 실제 조직개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도서관계는 과연 조직개편이 실제 이루어질 것인지, 그렇다면 언제 시행될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실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주요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따른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서관계는 지금도 여전히 귀 부에서 도서관 정책부서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그래서 최소한 도서관박물관과는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도서관계는 귀 부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근본적 이유가 아마도 현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자율이라는 커다란 원칙에 근거하여 도서관계 자율적 발전을 추진해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계는 귀 부의 의도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반드시 실현 (귀 부의 도서관법 개정시안 제7장에 언급된 사항임)

- 귀 부 문화정책실(문화정책과) 내 도서관 정책 담당자 배치 (최소한 사무관 이상 도서관 전문가 포함 2인 이상)
  - 집행기능을 담당할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전문가 임명 및 직급 차관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국립중앙도서관 내 정책집행 담당부서 전문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부서 내 도서관 정책/행정 담당 전문직원 배치 (최소 1인 이상).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반드시 과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를 두고 전문직원 다수 배치
- 도서관 지원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 (예를 들면 도서관진흥기금의 실질적 확보와 도서관계의 자율적 운용 기반 마련)
-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도서관 전문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책(제도적, 재정적) 마련
-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계(한국도서관협회)와의 상시적 협력체제 강화 등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이미 상당부분 귀 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법 개정시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고 확실하게 목표한 바가 달성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도서관 정책담당부서는 유지되어 귀 부가 2002년 제시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등 중요한 도서관 정책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서관계는 이번 조치가 귀 부 도서관 정책부서가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그간의 성과를 훼손하는 일이 있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들은 조직개편에 앞서 귀 부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 개최예정인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지난 십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간 도서관 발전의 불균형 현상, 공공도서관은 물론 각종 도서관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지역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업무 추진, 디지털도서관으로의 발전 등등 여전히 귀 부의 지도적 역할이 필요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지역문화 발전의 핵심이자, 지식기반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는 정부가 계속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진정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거듭 고민하고 연구하고 협의하여 우리 도서관계와 함께 도서관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도서관계는 언제나 귀 부의 도서관 정책 부문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계는 다시 한 번 귀 부가 도서관박물관과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들이 지난 1990년 문화부 창립 때 당시 문교부에서 귀 부로 도서관 정책 이관을 요청했던 주요한 이유가 바로 정책부서 설치 문제였음을 상기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과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습니다. 귀 부의 입장을 청취한 후 우리 도서관계 단체들의 공동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일

(사)한국도서관협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서지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